

두 이혼남 이야기

노순동 / 시사저널 기자

일마 전 울산에 내려갈 일이 있었다.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을 때다. 현장에는 구구절절 사연이 많았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노-노 갈등으로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개인들이 갈등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도 존재 조건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했다.

그런데 취재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더 와닿는 것이 있었다. 이른바 남성에게 보장되면서 여성 임금을 낮게 묶어두는 기능을 했던 '가족 임금'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여성에게도 가족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혹한 시장의 논리가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마당에 이렇게 농담을 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 한 달 월급 액수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한 식구가 먹고 살까' 하는 생각이었다. 아닌 말로 펄펄 힘이 넘치는 장정들이었다. 그들이 그 힘으로 해내고 있을 노동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게다가 그 공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깥 상황도 마찬가지다 보니 일을 때려치우고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기 일쑤라고 그들은 귀띔했다.

아니다 다를까, 찬찬히 사정 얘기를 들려주던 남성 두 명은 모두 이혼한 상태였다. 물론 다른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없지 않았겠다 싶었다.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기업 안에

만 1만 명이었다. 사회 전체로 놓고 보아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속담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예전에 어른들은 '느릿느릿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 아무리 여자가 발을 동동 굴러도 남자가 나서야 제대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나름의 경험칙이었을 것이다. 여성들의 돈벌이가 특히 고되었다는 것쯤이야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도 일하는 여성의 70%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니 그다지 변한 것도 없다.

하지만 울산의 공장 단지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아들들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나은 일 더 나은 조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목도한 느낌이었다. 씁쓸한 일이었다. 그 지역에는 몇 년째 정규직 일자리 씨가 말라 한 집안 안에서도 '정규직 형님과 비정규직 아우'는 혼한 일이 되었다고 한다.

비정규직 확산이 큰 문제라고, 기사를 쓰고 나서도 그들의 '가정생활' 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구조적인 문제는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건디는 개인들은 나름의 처세술을 가져야 할 터였다.

당사자가 유연하게 역할 조정을 못한다면 사생활이 어찌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람좋아 보이는 두 이혼남을 보면서 자꾸만 이들의 가정 생활이 어땠을까 저절로 생각이 났다. '이런 조건이라는 것을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맞벌이를 했다면 집안 일은 제대로 도왔을까?' **PIK**